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신명기 · 로마서 · 여호수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충현의 만나

2003

가정예배

신명기 · 로마서 · 여호수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8월의 그늘(shadow)



어깨 위에 머무른 여름 날의 열기는
인생의 고단함
폐부(肺腑)로 느끼게 하시는 그대의 형벌일런가요!
아주 오래 전 부터,
거친 숨소리
여전히 토(吐)하게 하셨음은
흔들거리는 인생(人生)
정화시키시고 또 정화시키시는 그대의 거룩일런가요!
그대가 아시고
우리가 알듯이
인생(son of man)이 설 곳은 없사옵나니,
애굽의 그늘은 수옥이 되고(사 30:3)
세상에 드리운 그늘은 사망의 기운일 뿐인 것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시 44:19).

더 지체 마소서!
큰 날개로 날아오시고
아주 오래 전,
처음부터 베푸신 인자(Son of Man)의 긍휼로 덮으소서!
그대는
나로 하여금
상(傷)한 손 그늘에 앉아 기뻐하게 하시리니,
그 곳은
내 영혼 깃들이게 하시는
오직 그대와 나만의 그늘이니이다!(렘 17:2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싹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아 2:3).

무더위가 계속되는 8월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덮으신 주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오늘날에도 주께서 종헌의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시원한 그늘과 맑은 생수(生水)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기도록 더욱 커다랗게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2003년 8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로마서 서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서, 바울은 본 서에서 구원에 관하여 말할 때마다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복음’(1:1), ‘하나님의 아들’(1:4), ‘하나님의 능력’(1:16), ‘하나님의 의’(1:17), ‘하나님의 진노’(1:18), ‘하나님의 영광’(1:23), ‘하나님의 진리’(1:25) 등등이다. 이처럼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신약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구약에 근거하여 구약과 신약성경의 연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로마서가 ‘죄’, ‘구원’, ‘성화’, ‘선택’, ‘헌신’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1장~3장까지는 ‘죄’의 문제를, 4장~5장까지는 ‘구원’의 문제를, 6장~8장까지는 ‘성화’의 문제를, 9장~11장까지는 ‘선택’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12장~16장까지는 ‘섬김’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위의 다섯 가지의 주제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으며, 믿음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읽는다면, 로마서가 정말 쉬운 성경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로마 교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목표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원래 로마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때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고(행 18:2), 결국 로마교회에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다(AD.49~51년 사이). 따라서 나중에 유대인 추방령이 철회되어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교회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화적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인이요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의인이요 하나의 족속이라는 것을 전함으로써, 그 갈등의 여지를 소멸시키고자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다(KD. 56).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분쟁과 분열이 계속 되었고, 그러한 슬픔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형식에 의존할 때 갈등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교회가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수호해야 하

는 이유를 생각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발과 인간의 절망, 그리고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독교 선언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읽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항상 율법과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든지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절망과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에 인간을 위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율법의 한계와 율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복음의 위대함을 대조하면서 읽어야 한다.

내용분해

1. 하나님의 의의 계시 1:1-8:39

- 1) 구원의 필요성 1:1-3:20
- 2) 칭의, 곧 하나님의 의의 전가 3:21-5:21
- 3) 성화, 곧 하나님의 의의 실현 6:1-8:39

2.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 9:1-11:36

- 1) 이스라엘의 과거 9:1-29
- 2) 이스라엘의 현재 9:30-10:21
- 3) 이스라엘의 미래 11:1-36

3. 하나님의 의의 적용 12:1-16:27

- 1) 성도의 의무 12:1-13:14
- 2) 성도의 자유 14:1-15:13
- 3) 개인적 문안과 송영 15:14-16:27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염려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배교(背敎)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뒤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달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도 동일한 죄를 범할 것을 염려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엄숙히 예고해 주셨습니다(15-25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심판과 진노를 미리 경고하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본성은 크게 부패해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 손으로 굳게 잡아주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타락하고 배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지만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43절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처럼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달려가도록 합시다.

긍휼의 은혜에 풍성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돌아보아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죽음을 앞 둔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 축복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소망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선포될 축복의 궁극적 기원이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 올리는 찬양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담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하고 안전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영원한 인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안전한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써 출애굽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본 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새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장입니다. 즉, 본 장의 시기는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트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일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전해 주었던 모세 자신조차도 그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서 율법을 지키려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와 경건을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진리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및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로 아는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및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임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절대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17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복음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요! 오늘도 더욱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까지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본 장의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은 자신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인 면서 유대인들은 주제님께 자기 자신들을 치켜세움으로써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우쭐댑니다. 우리는 자주 별 것 아닌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이 세상 끝 날에 반드시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영벌(永罰)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만이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맺힌 것은 의와 공평과 정의의 열매가 아니라 아무 쓸모도 없는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하여 주셨건만 그들은 최악의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었는데도 나쁜 열매만 맺은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불의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전적인 죄인이며 심판의 대상임을 밝힙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일찌라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한편,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신칭의의 원리와 보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엄격한 공정성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잣대를 가지고 전 인류를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방법도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지 선한 행위나 신분,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구원의 주님을 보며 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고, 할례가 구원의 확실한 표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이며, 율법 준수는 구원받은 선민의 마땅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 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합니다(창 15:6).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나 민족 및 혈통의 차별 없이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과 구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할 뿐입니다. 결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고, 또 우리가 준수해야 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이한 사랑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존재이며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화평, 소망, 기쁨 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성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더이상 세상의 것들로써가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출발하는 성화의 당위성도 강조합니다(3-6절). 성도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11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한 없이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15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19절).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죄의 욕망을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14절). 주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드시어 그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는 죄로 하여금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증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께서 죄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1-6절). 이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聖化)의 삶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하여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줍니다. 바울 자신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크게 탄식한 바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24절).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런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깊은 탄식에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25절). 어떻게 이런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사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의 죄성을 늘 경계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앞 장에 대한 결론이면서 동시에 1장부터 7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 성령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2-4절). 그리고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힘입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구습을 좇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좇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12-13절). 즉 육신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들이므로 영을 좇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도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서 참기 힘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화의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거나 낙망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 곧 성화(聖化)와 영화(榮化)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 주님을 닮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본 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을 토로합니다(1-3절). 이는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았고 언약과 율법을 얻는 특권을 누렸습니다(4절).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그릇된 태도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고 실제로는 교만과 편견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므로 약속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그릇된 생각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6-13절). 즉,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15절).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 옳으나 그렇지 않으나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구원의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성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의를 세우는 길과,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을 서로 비교하여 제시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하는 자는 인간적인 의를 세우는 자입니다(3절).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9-10절).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15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로 의를 얻으려고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시며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이러한 구원의 방법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11절).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무슨 선한 것이나 공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인 양 교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자는 의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본 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섭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경되지 않으며 구속사가 종결되는 그날에 최종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25-27).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짙은 암흑기 속에서도 항상 당신의 택하신 남은 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남겨 두시어 구원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은 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곧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인 우리는 주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남은 자를 예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말문을 열면서 거룩한 삶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해 놓은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1절 참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참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한 삶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있게 강론하고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거룩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능력은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바울은 거룩한 삶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1절). 거룩한 삶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나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이런 거룩을 낳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거룩한 삶을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모든 삶을 산 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라”(1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지만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장에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8절)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사랑을 ‘빛’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에게 잘 해주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값없이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사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진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 또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등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해야 할 문제들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자기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비난했습니다(1절).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자기들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13절). 다시 말해서,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해야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신앙 양심에 맡겨 놓으신 일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에 도전하는 행위이며(4,10절) 다른 형제들을 불필요한 근심에 빠뜨리는 악행이기 때문입니다(15절). 혹시 여러분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1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형제들과 화평하며 서로 덕을 세우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본 장의 앞 부분에서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간략히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17,18절).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나 교회가 자랑해야 할 내용은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 출석 교인 숫자, 선교 사역의 규모 등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영혼들을 회심케 하신 일이어야 합니다.

본 장의 뒷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선교 계획을 설명하면서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 너희 기도 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30절 이하). 바울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음을 알았기에 겸손히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 부탁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필요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선교 사역은 현지에 파송된 전도자들을 지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선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세계 전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드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로마서를 끝내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다정하게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매우 친밀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한 개인이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 교회가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일해야 옳습니다.

한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17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우리는 늘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복음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며 공교한 말로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마 10:16). 복음의 교훈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단호히 물리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훼방으로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께 매일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충현교회 모든 단기 선교팀이 서로 친밀히 연합하여 선교를 진행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열두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탁월한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자주 두려움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본 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7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혹시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8절).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마음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결코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을 담대히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깊이 묵상하며 성실히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연약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파송한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 안에 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었던 당시에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9,11절). 실로 라합의 이런 신앙은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들의 수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들을 친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러 외딴 오지나 해외의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는 전도자들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선교 현장으로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리고 성처럼 본래는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의 씨앗을 뿌려 주셨고, 마침내는 해외 선교사들의 순교와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모든 선교지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총현교회 단기선교팀들이 선교지에서 라합처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와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11-13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들려져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성결(聖潔)’을 명했음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奇事)를 행하시리라”(5절).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성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결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함, 즉 성결함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히 12:14 참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성결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결한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확실히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② 감기열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요단강 도하가 이루어집니다. 본 장은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려고 두 곳에 열두 돌 기념비를 세운 것을 기준으로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요단강 도하가 진행되는 동안 요단 강 가운데 첫 열두 돌 기념비를 세운 내용입니다(1-18절). 후반부는 요단 강 안에서 취한 열두 돌을 가지고 가나안의 첫 장소인 길갈에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운 내용입니다(19-24절). 구속사적 측면에서 볼 때, 요단강 도하는 홍해 도하와 다릅니다(23절). 홍해 도하는 과거 죄에 매여 종살이하던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물로 세례(고전 10:2)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탄생하는 중생을 의미하며, 요단강 도하는 광야 40년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이 세상을 떠나 완전히 성결함을 입어 천국에 들어감을 예표(豫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같은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역사를 기념하였듯이, 우리도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십자가 중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표징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기도 제목 / ① 구원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케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길갈에 진영(陣營)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할례(2-9절)와 유월절(10-12절)을 지킨 내용입니다. 이 때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대치한 위급한 상황(1절) 속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비록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절차에 따라 할례와 유월절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그를 위로한 일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聖潔)을 요구한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13-15절).

이와 같은 본 장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사인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하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만(롬 2:29)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동참할 수 있으며,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 대속의 피와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천국일꾼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 주시는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전진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안에 정결한 마음과 십자가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간 첫 지점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었고, 이곳을 택한 이유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도시 국가 체제로 분열되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을 분산하고, 가나안 전국의 주요 전략지를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 장은 여리고 공격에 관한 하나님의 전략(1-5절), 여리고 함락 과정(6-21절),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수 2장) 및 여리고 성(城) 재건 금지 명령(22-27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여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의 능력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으며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죄인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으로써만 진행되며,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순종뿐임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라합은 여리고 함락의 와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죄악 된 세상이 심판으로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라합을 살려주었는데, 이것은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체결된 새 언약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 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리고 성을 기적적으로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여 매우 초라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이성 공격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으며, 아간의 탐욕스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만에 빠져 자신들만의 힘으로 정복을 시도하다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할 때에만 영적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과 무조건적 은혜와 변치 않는 성실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배반하고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색출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자 아간을 처벌한 장소인 아골 골짜기가 훗날에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호 2:15), 이 예언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죄의 '아골' (괴로움)과 죄로 인한 '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이전의 '아골'은 이제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만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는 불신앙과 교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충현 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이스라엘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전술 전략을 재정비해서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본 장에는 아이성 재공격 명령과 공격 전술에 관한 지시(1,2절), 아이성 공격과 이스라엘의 승리(3-29절), 그리고 에발 산에 한 단을 세워 모세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나누어 서서 각각 율법 준수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30-3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비 신앙적 행동 때문에 실패로 끝났던 아이성 공격이 범죄자의 처형과 백성의 회개 이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회개를 통하여 해결될 때에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저주와 죽음만을 가져옵니다(사 59:1,2). 그러나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代贖)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엡 2:14,16). 그러므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요일 1:9).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 세상에 외쳐야 할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마음과 행실로 지은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본 장에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 평화조약을 체결한 일(1-15절), 또 그 조약에 따라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준 일(16-2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함락 소식을 접한 가나안 남부 지역 족속들은 자신들도 이스라엘에 함락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것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 족속과 나머지 다른 족속들이 취한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속임수를 썼지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의 행동은 속임수를 통한 비겁한 항복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과의 협상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런 실수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의 행할 바를 배워야 하고, 때로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여쭙어야 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의뢰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가나안 남부지역도 정복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족속 동맹군은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계획을 변경하여 보복 차 기브온을 먼저 공격합니다(1-5절). 결과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 원군을 요청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남부지역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6-8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대승리를 거둡니다(9-15절). 계속해서 본 장은 아모리 다섯 왕을 처형한 사건(16-27절)과 기타 남부 지역들을 정복한 사건들을 언급하고(28-39절) 정복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지경소개(40-42절)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해 가셨고, 정복 전쟁의 순간마다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신 절대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기브온 전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써 기브온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 제목 / ①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변치 않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북부 지역 정복과 정복 전쟁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전반부는 하솔왕 야빈 중심의 북부 동맹군의 결성 및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1-5절), 이스라엘의 북부 동맹군 대파(6-9절), 가나안 북부 지역 점령(10-15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가나안 주요 거점의 완전 장악에 대한 재확인(16-20절)과 아낙 자손을 진멸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 및 전쟁의 종결 내용(21-23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주요거점들이 모두 이스라엘 손에 들어옴으로써 가나안 정복 사업은 일단락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이며(창 15:18 ; 출 3:15-17), 장차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약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자손의 거대함에 기가 꺾여(민 13:22,23)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사 친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모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45년 전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22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고단하십니까? 묵묵히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기도 제목 / 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에 주인이 되어 주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가나안 주요거점지역의 정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본 장은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두 왕에 대한 기록과(1-6절)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 서편의 서른 셋 왕들에 대한 기록(7-24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간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수많은 죄악을 행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믿었던 많은 우상과는 비교도 될 수도 없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했던 땅을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본 장에 나열된 피정복자의 명단과 그들이 다스리던 곳에 대한 기록은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표현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여 세상 왕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진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거기서 축복 받음

※ 찬송/ 406장(내 맘이 낙심되며) ※ 본문/ 창 32:29

들어가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건강, 번영과 출세를 목표로 삼고 그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재산만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이 형통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자리로 승진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런 생각과 이런 추구가 옳은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위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3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전체를 읽은 다음에 아래의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 ① 3-23절: 야곱이 압박 나루에 홀로 남아 기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적어 보십시오.

- ② 24절: 그 당시 야곱의 심경이 어떠했겠는지 추측해 보고 적어 보십시오.

- ③ 29절: 씨름이 끝나고 야곱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을 여기에 옮겨 적으십시오.

- ④ 29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거기서 축복 받음」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질문에 대하여 축복으로', '더 중한 축복'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아굽이 제일 중요하게 기도했던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말해 보십시오.

답)

아곱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응답

② '축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아곱은 위기의 장소인 압목 나루에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

- ③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장소는', '네 씨로 말미암아'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왜 참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답)

- ④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가'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님과과의 교통의 자리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 ⑤ '오직 거기에서'의 단락을 읽고...

질문) 축복에 거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설교문에서 찾아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경우 이런 방법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축복에 거하는 방법	현재 나의 모습
죄를 ☐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 ☐ 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 을 따라 그를 ☐ ☐ ☐ 것	

나가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장소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축복의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축복의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축복의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떠나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축복의 장소를 빈 자리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씌름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위해 오직 그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기도

1. 감사 /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2 과 ○○○○○●●●●●

작은 보금자리

✠ 찬송/ 471장(십자가 그늘 밑에) ✠ 본문/ 시 84:3

들어가면서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참된 행복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물질만능주의에 혐오감을 느끼게 된 사람들은 탐욕을 버리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참된 행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만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시편 84편을 묵상하면서 참된 행복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을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의 심경을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시편 84편 전체를 묵상해 본 다음에 아래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① 3-4절: 왜 다윗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던 것일까요?

② 3절: 다윗이 부러워했던 참새와 제비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복을 누리
고 있었습니까?

③ 1-4절, 10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간절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을 골라서 적어보십시오.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15분

- ◆ 「작은 보금자리」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다윗의 소원', '성전에 깃든 새들'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간절히 소원하는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까?

답)

② '가장 좋은 보금자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답)

③ '자녀들을 위한 보금자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답)

④ '영원토록 안전한 곳으로'의 단락을 읽고...

질문)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 6:4-7, 엠 6:4

답)

⑤ '성전에 거할 겸비한 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죄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요일 1:9-10, 사 1:18, 시 130:3-5

답)

나가면서

여러분 모두 “나는 단지 작고 천하며 보잘것없는 참새라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네”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간증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궁전에 거처하고 있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아들을 희생하여 나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한 마리의 참새와 같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면 안전과 쉼, 기쁨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 감사 / 우리에게 평안한 날들을 주사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을 붙잡히 여기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좇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성도간의 풍성하고도 신령한 교제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한글음 표기법

2013.12.14. 14:00 ~ 2014.01.01. 14:00

한글음 표기법

1. '음' 표기법
 2. '음' 표기법
 3. '음' 표기법
 4. '음' 표기법
 5. '음' 표기법
 6. '음' 표기법
 7. '음' 표기법
 8. '음' 표기법
 9. '음' 표기법
 10. '음' 표기법
 11. '음' 표기법
 12. '음' 표기법
 13. '음' 표기법
 14. '음' 표기법
 15. '음' 표기법
 16. '음' 표기법
 17. '음' 표기법
 18. '음' 표기법
 19. '음' 표기법
 20. '음' 표기법
 21. '음' 표기법
 22. '음' 표기법
 23. '음' 표기법
 24. '음' 표기법
 25. '음' 표기법
 26. '음' 표기법
 27. '음' 표기법
 28. '음' 표기법
 29. '음' 표기법
 30. '음' 표기법
 31. '음' 표기법
 32. '음' 표기법
 33. '음' 표기법
 34. '음' 표기법
 35. '음' 표기법
 36. '음' 표기법
 37. '음' 표기법
 38. '음' 표기법
 39. '음' 표기법
 40. '음' 표기법
 41. '음' 표기법
 42. '음' 표기법
 43. '음' 표기법
 44. '음' 표기법
 45. '음' 표기법
 46. '음' 표기법
 47. '음' 표기법
 48. '음' 표기법
 49. '음' 표기법
 50. '음' 표기법
 51. '음' 표기법
 52. '음' 표기법
 53. '음' 표기법
 54. '음' 표기법
 55. '음' 표기법
 56. '음' 표기법
 57. '음' 표기법
 58. '음' 표기법
 59. '음' 표기법
 60. '음' 표기법
 61. '음' 표기법
 62. '음' 표기법
 63. '음' 표기법
 64. '음' 표기법
 65. '음' 표기법
 66. '음' 표기법
 67. '음' 표기법
 68. '음' 표기법
 69. '음' 표기법
 70. '음' 표기법
 71. '음' 표기법
 72. '음' 표기법
 73. '음' 표기법
 74. '음' 표기법
 75. '음' 표기법
 76. '음' 표기법
 77. '음' 표기법
 78. '음' 표기법
 79. '음' 표기법
 80. '음' 표기법
 81. '음' 표기법
 82. '음' 표기법
 83. '음' 표기법
 84. '음' 표기법
 85. '음' 표기법
 86. '음' 표기법
 87. '음' 표기법
 88. '음' 표기법
 89. '음' 표기법
 90. '음' 표기법
 91. '음' 표기법
 92. '음' 표기법
 93. '음' 표기법
 94. '음' 표기법
 95. '음' 표기법
 96. '음' 표기법
 97. '음' 표기법
 98. '음' 표기법
 99. '음' 표기법
 100. '음' 표기법

제 3 과

선택은 없습니다

※ 찬송/ 539장(이 몸의 소망 무엔가) ※ 본문/ 히 9:27-28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사실 죽음을 미리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 만큼 현실적이고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위로우신 심판 및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전 7:2).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절을 여러 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① 27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인간의 두 가지 결말은 무엇입니까?

② 28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해 놓으신 다음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 빈칸을 채우십시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 십자가 죽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 재

③ 28절: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④ 29절: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을 위한 재림입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선택은 없습니다」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 ①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와 '되물릴 수 없는 죽음'의 두 단락을 읽고...
- 질문)**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답)

- ② '준비해야 할 죽음'의 단락을 읽고...
- 질문)**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답)

③ '예수님의 죽으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벰전 224, 사 535-6, 요 3:15

답)

④ '죽음 후에는 심판이'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답)

⑤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빌 3:20-21

답)

나가면서

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열망하면서 고대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은 결코 미뤄지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여 바로 지금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감사 /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2. 간구 /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 4과 ○●●●●●○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 찬송/ 188장(만세 반석 열리니) ✠ 본문/ 창 3:7-12

들어가면서

죄를 짓고 난 직후에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것이고 “오늘은 도무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예배를 빠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래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① 3절: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미리 경고하셨습니까?

답: 3

② 5절: 사탄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바꾸어 버렸습니까?

③ 8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④ 10절: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무서운 유혹과 우리의 변명', '숨으려는 죄의 본성'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인간의 본성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② '헛된 수고'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예로 들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해 보십시오. 롬 6:23

답)

③ '고백을 통해 나아가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피해 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엡 4:18, 19

답) 노예의 마음을 속이고, 악한 행위를 행하게 한다.

④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죄인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창 39, 마 11:28, 계 22:17)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느낀 바를 말해 보십시오.

답)

⑤ '어린양의 진노'의 단락을 읽고...

질문)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계 6:16, 요 3:36

답)

⑥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죄책감에 짓눌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숨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요일 19-22

답)

나가면서

성도 여러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숨지 마시고 진리를 불드십시오. 그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숨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지금도 당신을 찾으시며 그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술래잡기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그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리 깊고 큰 죄라도 씻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 3:1-4). 아멘.

기도

1. 감사 / 하나님을 떠나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피하여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5과

미쁘다 이 말이여

✠ 찬송/ 416장(하나님은 외아들을) ✠ 본문/ 딤편 1:15-16

들어가면서

극적으로 회심한 이후 복음을 위해 한평생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말할 때마다 벅찬 감격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딤편 1:15a).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깊은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딤편 1:15b). 사실 바울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노년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라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복음을 것처럼 감격스러워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의 죄수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울처럼 복음을 감격스러워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빌립보서 3장 4-6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16절을 함께 읽고 바울이 자기 자신과 복음에 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① 빌 3:4-6 /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을 세 가지만 골라서 적어보십시오.

② 딤후 1:15 /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③ 딤후 1:15 / 바울이 “미쁘다”라며 탄복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④ 딤후 1:16 /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입은 까닭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미쁘다 이 말이여」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가장 도덕적인 자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는가?' 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죄인 중에 내가 과수니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답)

②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 '복음에 대한 감격' 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탄성을 발하여 복음을 감격스러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

③ '진정한 복음은'의 단락을 읽고...

질문)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④ '죄보다 큰 은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바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에 비하여 얼마나 큰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답)

⑤ '계속되는 감격'의 단락을 읽고...

질문) 그 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감격이 그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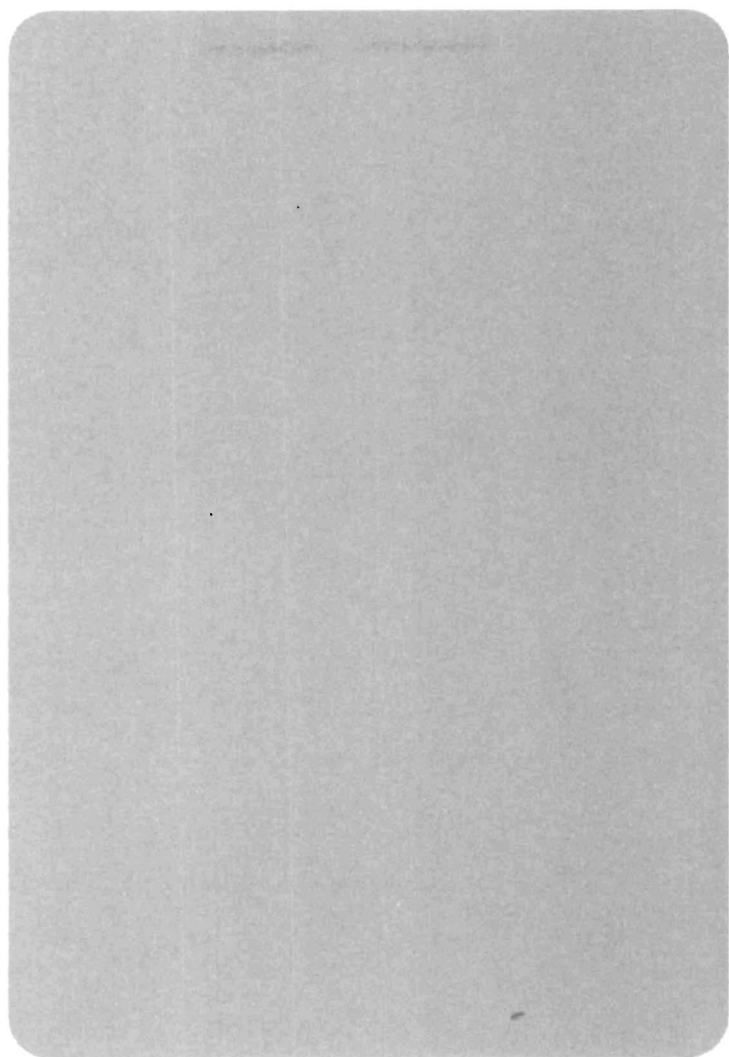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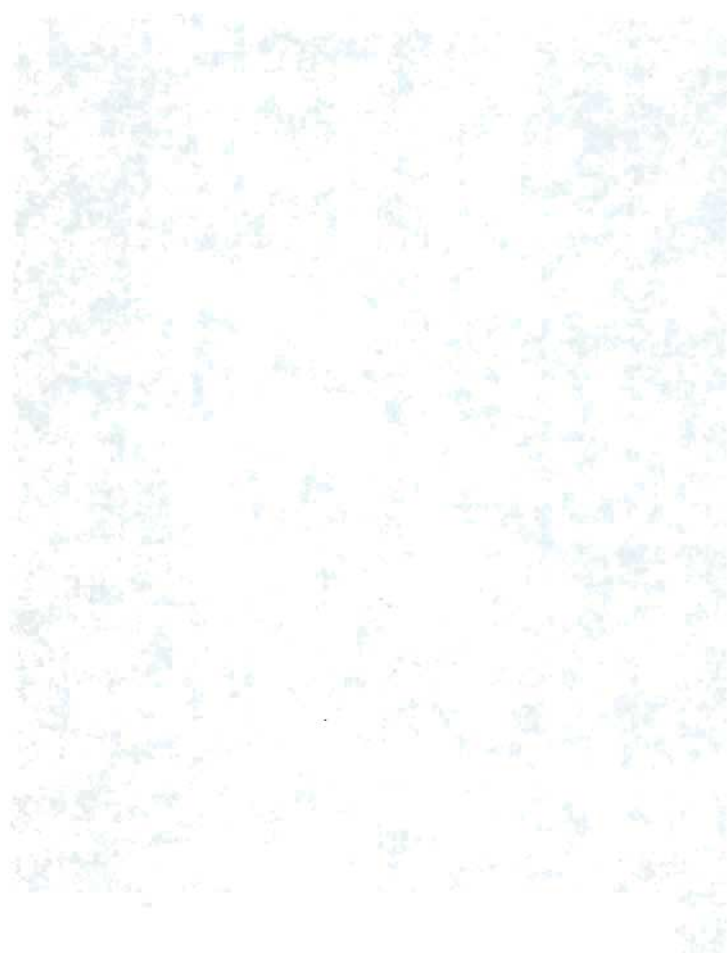
복음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나 참으로 미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과 그의 깨끗케 하시는 피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리가 저 잃어버린 자들의 자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은 두렵고 그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예수님께서서 죄인들, 곧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1. 감사 / 우리를 죄와 부패함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충현교회가 복음에 대한 감격을 마음에 품고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제5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5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동행이론두코방남

이수현 이은주

이수현

이은주

동행이론
모
두

이수현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수현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가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3년 8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잡필진 / 만나 : 안치원(1-7일), 정충신(8-14일), 이태복(15-22일),
양재웅(23-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
